

‘나와 이웃 함께 성불’ 화쟁 정진이죠

동산불교대학 신 화쟁법회

한담 스님(문사수법회 회주)

한담 스님의 법문은 막힘없었다. 갈등이 많은 시대에 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우리 각자가 부처자리를 찾는 데 있다고 했다. 중생이라는 꿈에서 홀가분하게 깨어나 참생명을 찾으면 너와 내가 없어지는 한성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10월 18일 동산불교대학이 ‘제 1회 국제 신 화쟁사상 정진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담 스님과 일본의 후지 요시 나리 박사가 화쟁사상을 주제로 강의했다. 다음은 한담 스님의 법문이다. 정리=배현진 기자

불교는 다름이 없는 곳
불교의 화쟁이란 말은 결국 다투지 말고 한마음, 한 뜻이 되란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처음부터 다름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다름을 만들어서 조계종 내부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가 하면 태고종과 조계종으로 나뉘어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은 촌수로 따지면 몇 촌 차이도 나지 않는, 원래부터 같은 집안입니다. 한 곳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세상판이 온통 싸움으로 번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불교를 알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일체 모든 적과 원수, 공포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 들어오기 전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것이 생존경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 이외에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보는 것을 뜻합니다. 거기에는 부모, 자식, 친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죠. 그러나 불교에는 내가 해쳐야 할 존재도, 미워할 존재도, 다름 존재도 없습니다. 그런 세계가 바로 참생명의 세계입니다. 아미타의 세계죠. 나무라는 뜻입니다. 귀명. 돌아갈 귀(歸)에 목숨 명(命)자를 써서 참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불교는 내 밖에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갖바위에 가서 기도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특정한 곳에 특정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은 존재합니다. 귀명한다는 뜻의 나무는 언뜻 생각해보면 뭔가 밖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참생명으로 돌아감을 뜻합니다. 모두가 한생명이나 다름없어야 다름 수가 없어요. 어디가든 모두가 나를 이끌어주시는,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부처님밖에 없으니까요. 이를 제대로 아는 것이 나무아미타불이고 귀명입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관세음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 소원을 들어주시라고 떡을 바치고 과일을 바치고 하죠. 만약 부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있다면 내가 달라기 전에 다 줬지 떡을 얻어먹으려고 기다리고 계셨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절을 천 배 정도 하면 그제서야 부처님이 눈을 한 번 뜰까말까 한다구요. 부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십니까. 절을 죽여라고 했을 때 잠깐 봐준다고 한다면 그런 분을 믿어서 뭐합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달라고 하기 전에 이

미 다 주시는 분입니다. 답답하다 하면 이미 해방되었다고, 자유롭다고 말씀하십시오. 부처가 되겠다고 하면 그럴 필요 없다고 이미 너는 부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나무아미타불로 모든 다름 사라져
궁극의 의지처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종교입니다. 세상에는 괴로움이 많습니다. 생로병사는 물론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미운사람과 만나고 하고,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세상살이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여기다대고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짓말을 하니 사람들이 점점 더 괴로워지고 외로워지죠. 뭘까 의지하고 싶을 때, 그때 궁극의 의지처가 되는 곳이 종교입니다.

절대 무한이 됨으로써 궁극의 의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대립이 없다는 말입니다. 끝을 절(絶)에 상대 대(代)자를 씁니다. 상대 대립이 없으며 대신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온 세계가 1인칭인 세계이고 2인칭 3인칭이 없는 세계인거죠.

그리고 무한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이자 법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그 내용이 드러나 있는 것이 절대 무한입니다. 무한은 자기 스스로 특정한 모양을 가질 수 없어요. 만약 그런 모양을 가

불교공부하면 일체적과 공포심 벗어나
불교의 화쟁은 한마음 한뜻 되는 것
‘일체중생 실유불성’ 마음 가져야

다름은 겉모양에 속아 일어나는 것

모든 사람은 본래부터 한생명

참생각 방해 받으면 ‘나무’ 염송하자

했다면 네모와 세모 모양과 맞지 않을테죠. 그래서 모양이 없는 절대 무한을 법신이라 합니다. 법신불 밖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신불은 모양이 없으니까 우리 같은 못난이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는 본래부터 법신생명이고 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이라 합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궁극의 의지처를 찾아가는 신념만 있으면 다름 일이 없습니다. 한생명의 세계니까요. 그러나 이 못난이들이 참생명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눈이 팔려서 속고 지내는 것입니다.

법신불을 떠나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생들이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법신불이 저절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떨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제도해야겠다고 마음을 내는 거죠. 그러나 눈먼 장님인 우리는 모양 없는 법신불을

보지 못하니까 그는 원력에 부응해서 보신불이 됩니다. 우리가 아미타불이라 부르는 분입니다. 아미타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절대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무한입니다. 우리가 떠나 있는 아미타가 아니라 함께 있는 아미타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이 바로 보신불입니다.

그리고 다시 무지몽매한 이들을 위해 상이 있는 존재로 변화해 나타난 불이 석가모니불입니다. 화신불이죠. 화신불은 중생을 교화시키기 위한 몸이라는 뜻도 있고 몸이 없는데도 몸으로 변화해 나타난 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조그만 나라의 태자로 태어날 이유는 없었지만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우리의 인식범위 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려고 특정한 공간에 시간에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신 분이 석가모니입니다. 또한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후 화하신 분이 관세음보살이고 지장보살, 약사여래불 또한 아미타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처님이 낫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다름이 일어났던 본래자리로 돌아가면 아미타불을 만나게 됩니다. 나무아미타불로 모든 다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추울 때는 따뜻한 태양이고 밤에 생각할 때는 밝은 태양이죠. 그러나 따뜻한 태양과 밝은 태양이 따로 있는 건가요? 밝은 것은 문수보살, 따뜻한 것은 관세음보살입니다. 문수보살 따로 있고 관세음보살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겉모양에 속고 있으므로 다름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의견에 속지 말고 참생명으로 돌아가면 내 밖에 남이 없습니다. 세계일화(世界一花), 세계는 한 송이 꽃이므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만공 선사의 말처럼 이 세상에는 내가 미워해야 할 적이 없습니다.

다름없이 사는 법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지 간에 항복해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부처가 되겠다는 수보리 존자에게 석가모니는 부처되고자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합니다.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이 함께 부처되어지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기도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은 부처되겠다는 생각은 물론, 부처되는 것조차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의 중생을 극락세계로 보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은 지금은 중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스스로 중생이라고 우기기에 중생입니다. 본래 부처니까 참생명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만 가지십시오.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지 간에 그건 전부 내버리고, 본래 부처자리 그것을 참생명으로 알고 지내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를 의지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나와 더불어 사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싸움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착하지 않은 사람이, 부처님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다른 이들이 나를 못살게 군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적이 아니에요. 나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못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나가 강합니까. ‘내가 편해야겠다, 사랑받아야겠다, 대접받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지는



한담 스님은 ... 고려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했다. 원각회, 불광법회 초대회장과 금산사, 안국사 등에서 상임법사를 역임했다. 현재 문사수법회 회주다. 저서로 <반야심경과 나무아미타불> <나의 참생명 부처님생명> <반야심경의 재발견> <황금의 수레바퀴> <불교란> 등이 있다.

것입니다. 타인은 나를 꺾어주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아상을 꺾어주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스스로를 중생이라고 우깁니까.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꿈입니다. 자다가 경이 일으키는 아이를 보면 엄마는 얼른 깨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부처세계에 살고 있는데 중생이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본래 이름은 아미타예요. 나무아미타불하고 부르면 ‘응’하고 깨어나면 됩니다. 이처럼 나쁜 꿈을 깨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다두면서 사는 것은 내가 마음이 어지러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 헛기지 말고 참생명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본래부터 빛나는 생명을 살고 있지만 쓸데없는 근심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리가 짝짝이라면 짧은 다리를 보지 말고 긴 다리를 보듯 남의 장점을 보십시오. 공양은 보시에 정성과 공경을 더하는 것입니다. 주는 마음으로 살면 그게 참마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쟁, 평화로운 상태에서 남과 다투지 않

는 마음을 가지라는 원효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생명으로 돌아가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참생명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방해하고 해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로온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아요. 이처럼 참생명이 방해받으니까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나무나무 하십시오. 이렇게 한 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참생명인 부처생명으로 돌아갑니다. 부처생명은 남이 없습니다. 남이 없으므로 미워해야 할 남도 없고 다투야 될 남도 없습니다. 원망해야 할 남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래부터 한생명입니다.

나무나무하면 하늘에 깬 구름을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푸른 하늘이 나오죠. 구름이 깬 때는 푸른 하늘이 어디 출장 갔었나요. 하늘은 그대로 있었죠. 이처럼 아무리 우리가 중생이라고 우겨도 부처님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무 아미타불하면 천지가 고맙기 한량없는 세계로 바뀝니다.

천지운명

건강 120세

불자 여러분들에 건강과 운명이 수록 되어 있는 책!

천지운명
[건강 120세]

무량 역을 | 신국대판 | 720페이지
장기 120,000원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재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효소(발효)당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온 국민이 건강을 지키시라는 큰 발심을 하여, 20여년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한방이라든지 민간요법 효소당그는 법을 연구해 온 것을 이 책 속에 수록한 것입니다.

부디 ‘천지운명건강 120세’ 책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자리매김하기를 발원하며, 책을 구입하시는 선착순 100명께는 기존 출간된 천지운명 책 한권을 더 드립니다.

불자 온 국민 여러분들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24-119번지

대선불교조계종 천운사 무령 합장

전화 032)655-1356 / 팩스 032)664-1356 / H P 010-6674-1356
입금계좌 : 농협 170972-51-038226 / 신한 110-113-445631(예금주 : 장지업)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심리상담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호법 봉사단원 모집

삼보에 귀의하옵고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여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며 언제나 법행 기독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대일불교조계종
호법봉사단
선원장 구룡 합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건장사(建將寺)

◇적추,골반,관련 통풍 효과 입증 ◇웰강 상황 속담방 운영
◇효과가 입증된 훈증침대 (특허출원번호:제10-2011-011722호)
스님은 무부시로 모십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82-2000번지 건장사 주지 청진합장
053) 763-7510 / 011-572-4438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